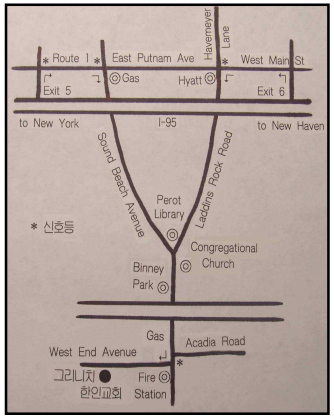
그리니치 한인교회는 커네티컷 남부 그리니치에 자리잡고 있는, 믿음과 삶을 함께 나누는 곳입니다.

모 임		시 간	장 소	비 고
주일예배	1 부	주일 낮 12시	본 당	말씀 위주로 40분 동안
	2 부	주일 오후 1시	본 당	예배 뒤 점심 및 친교
교회학교	주 일	주일 낮 12:45	교육관	예배 및 성경공부
	주 중	금요 저녁 8시	소예배실	중고등부 리더 훈련
말 씀 과 기 도	말씀나눔	화요 아침 10시	교육관	잠시 쉬고 있습니다
	찬양예배	금요 저녁 8시	본 당	찬양, 강해설교, 기도
	기 도 회	토요 아침 6:30	본 당	말씀, 기도, 아침식사



◆ I-95 남쪽에서 오실 때: 1) 커네티컷 Exit 5번으로 나와 램프 끝 신호등에서 우회전 (E. Putnam Ave), 2) 첫 신호에서 우회전 (Sound Beach Ave.) 3) 기차 굴다리를 지난 뒤 첫 신호등에서 우회전 (West End Ave.). 4) 약 200미터 가시면 왼쪽에 교회가 보입니다 (Presbyterian Church of Old Greenwich 건물)

◆ I-95 북쪽에서 오실 때: 1) 커네티컷 Exit 6번으로 나와 램프 끝 신호등에서 직진하고 다음 신호등에서 우회전 (Harvard Ave.), 2) 첫 신호에서 좌회전 (West Main St. Rt. 1) 하고 두 번째 신호에서 좌회전 (Laddins Rock Rd.). 그 뒤는 위의 3) 이후와 같음.

사랑 (LOVE) 그리니치 한인교회 주간소식지 발행인: 담임목사 권수경

GREENWICH KOREAN CHURCH
38 West End Avenue
Old Greenwich, CT 06870
(203) 637-8743 (203) 829-1595
Homepage: www.greenwichchurch.net
Email: koreanchurch@optonline.net

Stamp He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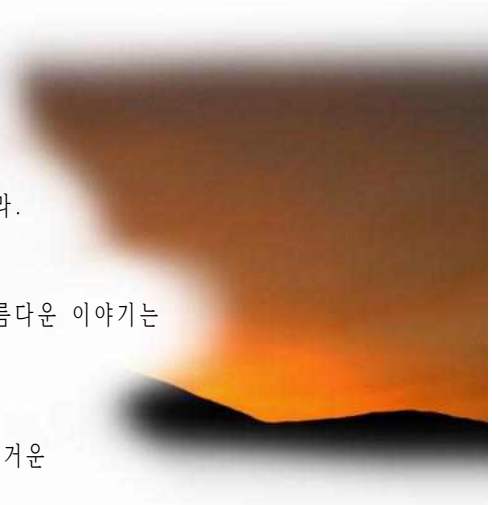
TO

사랑 LOVE

그리니치 한인교회
GREENWICH KOREAN CHURCH
주간소식지 Weekly Newsletter
제 11권 41호, 2010년 12월 02일

이제 나무가 옷을 거의 벗었습니다. 잔디는 아직 파랗지만 이제 곧 내릴 눈 아래로 숨어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사월이 와 흐드러지게 꽃이 피기까지는 온 세상이 이런 잿빛으로 죽은 듯 살아가게 됩니다. 삶과 죽음을 되풀이하는 것이 비단 인생뿐 아님을 천지의 변화로 다시금 느껴봅니다.

죽음의 계절을 맞으며 생명을 기다립니다. 그런 뜻에서 겨울의 초입에 동지가 있다는 건 참 많은 위로가 됩니다. 여름에는 길기만 하던 낮이 점점 짧아지더니 서머타임이 끝나기가 무섭게 온 세상이 밤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동지와 더불어 낮이 힘을 되찾기 시작하고 그 외로운 수고가 따뜻한 봄바람과 만나는 순간 온 세상은 총천연색의 생명을 되찾을 것입니다. 그러니 깜깜해진 밤하늘에 찬바람이 윙윙거려도 동지를 동지 삼으면 힘이 좀 날 것입니다.



어두운 밤의 이야기는
하늘과 땅이 갈라지기 전부터
숱하게 범람하던 것이다.

밤이 길어도
아무리 길어도
언젠가는 날이 새는 것을 믿어라.

태양에 매달린 외로운 지구가
우리와 함께 숨을 쉬는 한
우리 언젠가는 주고받을 그 아름다운 이야기는

새는 아침
참으로 눈부시게 새는 아침
뜨거운 악수와 함께
흐드러지게 웃으며 주고받을 즐거운
숙제로 남겨 두기로 하자.

신석정의 시 "숙제"를 제 기억에서 옮겨 적었는데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진 시집에도 없고 인터넷 검색에도 안 나옵니다. 광복의 그 날을 기다리며 쓴 시 같지만 우리 인간 세계에 가득한 그 어느 기다림에 갖다 대어도 뜻이 통하는 것 같습니다. 천체의 운행에 희망의 근거를 둔 것은 동지를 축하하던 옛 사람들의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축제의 날을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삼은 것은 태양과 지구를 움직이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 그 분의 사랑을 깨달은 까닭이겠지요.

알림 – 종이 사랑지는 곧 종간됩니다. D-2

지난 주간 소식

지난 주일에는 주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Advent) 예배를 드리고 이어 사귐을 가졌습니다. **주일예배**는 평소처럼 많은 찬양을 먼저 주께 드렸습니다. 이어 권 목사님의 목회기도를 통해 우리 찬송과 감사와 회개와 간구를 주께 아뢰었습니다. 인사를 주고받는 시간을 가지고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눈 다음 그리스도 탄생을 예고한 이사야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어 권 목사님의 설교 "아기를 기다리며"를 들었습니다. 기다림의 두 얼굴 곧 현재에 대한 불만족과 보다 나은 앞날에 대한 기대감을 뼈대로 하여, 죄와 죽음의 그늘에서 신음하고 있는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한 아기의 탄생을 통해 어떤 밝은 미래를 약속하셨는지 살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어 주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찬송을 함께 불렀고 헌금을 드렸습니다. 또 다른 대림절 찬송을 부른 다음 권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사귐의 시간에는 곽중모 집사님 가정에서 사랑으로 제공하신 귀한 점심을 함께 먹으며 주 안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각 방으로 흩어져 모여 음식을 먹으며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연극팀이 교실에 따로 모여 연극을 준비하였고 사무실 옆 교실에서는 고등부 세례교육반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도 교실에 따로 모여 성탄 축하 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본당에서는 이 날도 성가대와 찬양팀의 연이은 연습으로 아름다운 멜로디가 울려 퍼졌습니다.

주일학교 소식

유년부는 매주일 "성경 암송 - 찬양 - 말씀 - 성경 암송"의 순서로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은파 사모님의 말씀 암송 인도로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창세기 1장, 에베소서 6장 1절을 계속해서 암송한 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18절 말씀 암송을 새롭게 시작하였습니다. 이어 장 목사님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요'라는 설교를 해 주셨습니다. 헌금을 드린 다음에는 찬양 '너무 좋아' 'Mercy is falling' 을 노래하였고 이어 박성민 선생님과 이은파 사모님 인도로 성경공부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고등부는 중고등부 찬양팀 인도로 많은 찬양을 주께 드렸습니다. 헌금을 드린 다음 바로 두 반으로 나누어 분반공부를 하였는데 특히 시편1편과 시편23편 암송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었습니다. 주일 식사 후에는 친교실에서 고영범 교우님 인도로 성탄 이브 행사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락인으로 피곤해하는 아이들이 몇 있었지만 모두들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부탁말씀: 지금 주일학교는 유년부, 중고등부 모두 성경암송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탄이브 행사 때 아이들이 말씀 암송을 선보일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숙제 구절을 잘 암송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1)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입니다.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기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늘 복잡해 보이는 삶이지만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하루하루를 인도해 주셨음을 잊지 맙시다.

2) 이번 12월에는 첫 주일 (5일)에 성찬식이 있으며, 셋째 주일 (19일)은 성탄주일로, 마지막 주일 (26일)은 송년주일로 지킵니다. 성탄 이브 (24일, 금)에는 저녁에 모여 예배 및 축하순서를 갖고 올해 마지막 날 (31일)에는 송구영신예배를 교회에서 드립니다.

3) 지난 주일 예배 후 가진 공동의회에서는 새해 예산안을 예산위원회가 준비한 원안대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더욱 전진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와 노력을 함께 모읍시다.

4) 지난 주말에는 추수감사절 연휴로 금요 찬양예배 및 토요 기도회가 모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평소처럼 금요 **찬양예배**와 토요 **기도회**가 둘 다 모입니다. 열심히 참여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5) 오는 주일 예배 시간에는 **성찬식**을 갖습니다. 기도로 준비합시다.

6) 12월 사랑방은 각 방 방장들께서 방원들과 의논하여 좋은 시간 좋은 장소에서 모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권방은 12일 (일) 오후 권 목사님 댁에서, 한방은 11일 (토) 저녁 김주희 교우님 댁에서 모임을 갖기로 결정하였습니다.

7) 성극단 "떡과 백합"과 중고등부 연극팀이 이승규 교우님 및 고영범 교우님 지도로 성탄절 성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 교회 홈페이지가 "www.greenwichchurch.net"으로 일단 문을 열었습니다. 아직 기초공사 단계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 몸이 불편한 분들, 특히 장기 요양 중인 분들을 위해 계속 기도합시다.